

# 삶의 양념인가, 죽음의 입맞춤인가? : 스트레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들어 어느 유명 전자관련 대기업 사업장에서 1월 3일과 13일에 이 회사 소속의 근로자 2명이 차례로 자살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관련이 없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경향신문 인터넷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5~2008년 3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질환의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가 2005년 6만 6,000명에서 2008년 10만 1,000명으로 연 평균 15.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투데이 인터넷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게다가 2008년 스트레스 질환 10만 명당 실진료환자수는 직장 여성 근로자가 262명, 여성 비근로자 226명, 남성 근로자 157명, 남성 비근로자 110명의 순으로 비근로자보다 직장근로자의 스트레스 실 진료환자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직장근로자의 스트레스는 과중한 업무 부담, 상사의 차별적 처우, 근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나 한국의 경우는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시되는 기업문화가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신묘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특집호의 주제가 밝지 못한 것이 마냥 유감스럽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근 사회적으로 자살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늦은 감조차 든다. 첫 번째 논문은 새로운 사회심리학적 위협에 대한 EU의 최근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로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결근일수의 5할 내지 6할을 차지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00억 유로 수준의 비용이라는 점은 우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전문가의 예측을 통하여 분류된 5개 영역의 사회심리학적 위험은 우리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안타깝기만 하다.

두 번째 논문은 EU에서 노동조합, 정부, 고용주에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중요한 의제로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를 예방 차원에서 접근함과 더불어 사후대책으로서 스트레스나 정신질환을 공식 직업병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띈다. 사실 한국에서는 스트레스 관련 직업병의 산재승인률에 대한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인천지역 근로자들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질환을 앓아도 산재보험 혜택은 ‘하늘의 별따기’다. 21일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공단)에 따르면 인천지역 산재승인률은 지난 2006년 65.0%에서 지난해 52.1%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암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 승인률은 지난 2006년 61.6%에서 지난해 17.8%로 급격히 낮아졌다”(경인일보 인터넷 기사 2010년 7월 22일자)는 기사를 볼 때, 한국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관련 직업병의 산재인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도의 업무추진계획에서 OECD 회원국가 가운데에 유일하게 연간 2,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2012년에 1,950시간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튼튼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로서 장시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를 통한 직업병 유발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상 질병과 더불어 업무상 사고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박신구, 「직무 스트레스와 산업재해」, 『노동법률』, 2009. 8.), 장시간근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사회심리적 위험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의 강구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제가 올해에 노사정이 다룰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서 활성화되어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근면한 한국의 근로자들에게 결코 스트레스가 ‘죽음의 입맞춤’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이 글의 제목은 European Commission이 발간한 업무관련 스트레스 안내서의 부제에서 따온 것임을 밝힌다. **KLI**